

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는 흔히 황금 비유로 불립니다. 성경의 비유 중 복음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한 비유입니다. 오늘은 특별히 누가복음 15장 11~24절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에게 초점을 맞춰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.

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가리킵니다. 둘째 아들의 죄 된 모습을 찾아가다 보면 우리의 죄 된 모습을 알게 됩니다.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.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의 진리를 살펴보기 원합니다.

본문의 말씀 속 둘째 아들에 대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. 이 17절에 '이에 스스로 돌이켜'라는 말입니다. 이것은 '제정신이 돌아왔다'라는 뜻입니다. 둘째 아들은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을까요?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복음의 중요한 진리는 무엇일지 살펴보기 원합니다.

● 우선 우리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 인류가 가진 죄의 본질을 알게 됩니다.

- 인생의 주인에 대한 오해

12절 말씀에 보면,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 중 자신의 분깃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.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에게 죽으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.

-> 이것이 인간 죄성의 중심의 마음입니다.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,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

- 행복에 대한 오해

둘째 아들이 재산을 받아 제일 먼저 한 것은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간 것입니다. 그의 생각에 그의 행복은 아버지를 떠날 때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.

- 성공에 대한 오해

둘째, 아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인생의 성공과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.

사실 이런 오해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.

● 둘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.

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한 것은 배고픔의 고통 때문이었습니다.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고자 한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. 자신의 진심 어린 고백을 통해 아버지를 감동하게 해야 아버지의 집에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. 반면에 구원은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 때문에 이루어집니다.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고, 그냥 받아 주시고, 축복하십니다.

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.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앞에는 두 가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. 잃은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입니다. 두 비유에서는 주인이 잃어버린 것을 찾아 적극적으로 나섭니다. 그리고 잃어버린 것을 찾아냅니다. 그런데 탕자의 비유에만 잃어버린 탕자를 찾아내는 사람이 없습니다.

여기서 복음의 반전이 있습니다. 우리에게는 진정한 큰 형이 우리를 찾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. 먼 외국까지가 아니라,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까지 오셨습니다.

말씀

이번 주 외울 말씀

“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” (에베소서 2장 8-9절)

통독

이번 주 성경 통독

9/13(월)	9/14(화)	9/15(수)	9/16(목)	9/17(금)	9/18(토)	9/19(주일)
겔 14-16	겔 17-19	겔 20-21	겔 22-23	겔 24-27	겔 28-30	겔 31-33

QT

이번 주 QT 말씀

9/13(월)	9/14(화)	9/15(수)	9/16(목)	9/17(금)	9/18(토)	9/19(주일)
삿 18:14-31	삿 19:1-15	삿 19:16-30	삿 20:1-16	삿 20:17-28	삿 20:29-48	삿 21:1-15

나눔

목장 나눔 문제

1.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이나 은혜 받은 것을 나누어 주세요.
2. 탕자의 모습에서 보이는 죄의 본질적 모습이 내 안에 있는지 나누어 주세요.
3. 예수님을 영접한 개인적인 경험(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경험)을 나누어 주세요.